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一)

裴相河君의 理論을 批判함

柳春海

一.

이 붓을 들기까지 나는 新聞紙 또는 雜誌 等 上에서 數三次나 裴君의 글을 읽은 일도 있고 同時에 그에 對한 諸氏의 評과 批判도 보았다. 勿論 이 以上의 모든 것이 主因이 되어 지금 나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하였다하여도 可하겠다. 그러나 나는 君을 攻駁하기 爲하여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眞正한 理論을 爲함이다.

(나도 現代 朝鮮에 있는 一介의 熱血이 쥘는 朝鮮 靑年인 同時에 무엇을 하나 하라고 힘쓰고 있다는 意味의 君의 글을 언제인가 李灌鎔 博士의 批判에 對한 君의 答辯에서 읽은 일이 있다. 참으로 나는 以上 君의 盟禽의 主人公인 君을 사랑하고 期待하고 또 倣□한다. 그러나 이 사랑과 期待와 또 倣□를 자아내든 君의 盟禽-君의 思惟-로만 가지고 君을 全的으로 云謂하지 못하겠다. 換言하면 思惟의 結晶的 表現의 無價値한 것이 그 緣故이다.

如何한 理論이든지 實際를 써나서는 無意味하고 無價値하다. 그런 故로 그런 理論은 意味있고 價値있게 存在 할 可能性이 全無하다. 그럼으로 나는 君이 云云하는 方法論을 討究하여 君의 思惟過程을 批判하는 同時에 君의 思惟와 現實과의 關聯에 論及하려한다.

二.

-나는 『非唯物的인 것』에 對한 同志들의 모든 忠告를 沈黙으로써 甘受하였다. 엇더타고 變名 할 餘地가 업섯기 때문이다. 그리치만 萬若 李灌鎔氏 모양으로 『非唯物的인 것』의 銜學的 序言 (그것은 내가 쓴 것이지만 正말로 銜學的이었섯다.)만으로써 그것 全體를 한 개의 反 唯物論的 誹謗文이라고 評할 것 가트면 나는 아모리 『非唯物的인 것』이 貧弱한 論文이라 할지라도 죽을힘을 다해서 反抗하려한다... 도리혀 그것은 純眞한 마음과 素朴한 表現으로써 唯物論을 알려는 心的 動搖의 첫 高□이 아니었든가? 그리고 兪君이

여! 心的 動搖는 眞實한 探求의 첫 階段이라 함은 A教授에게 君과 함께 몇 번이나 들은 말이 아닌가? 呵呵-(『유군의 평론에 관한 添言』에서)『心的 動搖는 眞實한 探求의 첫 階段이라』함은 어느 假說範圍에서만 有意義한 것이다. 吾人의 自身 안에서 心的 動搖가 自發的으로 究發하는 것이 아니고 心的 動搖를 일으키는 原因은 自己 以外의 客觀的으로 存在한 것은 勿論 恒常 變遷하는 故로 卞라서 心的 動搖도 外部 原因에 適應하여 變化하는 同時에 反作用을 外部에 波及하는 것이다. 故로 所謂 『心的動搖』는 君의 意味한 바와 가티 精的이 아니고 動的이며 常主的이 아니고 可變的이다. 君은 思惟過程의 一部로 생각하는 所謂 『心的 動搖』를 精的으로만 보고 動的으로 보지 아니하며 觀念論的으로만 云謂하는 唯物 辨證法的으로 보지 아니하는 故로 君의 方法論으로는 必然的으로 懷疑論的 方法論만이 最善의 것인 것처럼 思做되는 것이다.